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제36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일 시	2022. 3. 14.(월) 15:30	장 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
참석위원	서용원, 한상만, 김은상, 박동희, 양경아, 장필규, 전미희, 윤영선 평의원 / 전재욱, 김중환, 최유선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1명)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 박형준 계장 배석		
불참위원	김윤배 평의원		

1. 개 회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총 12명의 평의원 중 8명이 참석하고 3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36차 대학평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제36차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이 제5기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호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3건임을 확인하면서, 전차 회의록을 묵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

2. 제5기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호선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대학평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관례에 따라 대학평의원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 호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평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다.
- 평의원 중 연장자인 김은상 평의원이 임시의장직을 수락하다.
- 김은상 임시의장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5기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호선에 대한 심의를 상정하고, 역대 대학평의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호선 관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역대 의장은 인사캠과 자과캠의 교원 평의원께서, 부의장은 총무처장께서 역임하셨다고 답하다.
- 김은상 임시의장이 평의원들께 자기소개 및 참석위원께 의장 호선을 위한 자유로운 추천과 토론을 제안하다.
- 전미희 평의원, 서용원 평의원, 한상만 평의원이 인사캠과 자과캠의 교원 평의원이 의장을 역임한 관례를 고려하여 풍부한 연륜과 안목을 갖춘 김은상 평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천하다.
- 김은상 임시의장이 평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제5기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으로 김은상 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 김은상 의장이 직원 평의원 중 대학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박동희 평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추천하다.
- 김은상 의장이 평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제5기 대학평의위원회 부의장으로 박동희

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3.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김은상 의장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심의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역할에 대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다.
- 김은상 의장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활동 경험과 탁월한 안목을 갖춘 전미희 평의원을 추천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중대한 바, 대학평의원회의장이 당연히 참여해야함을 제안하며 김은상 의장을 추천하다.
- 김은상 의장이 대내외 보직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한상만 평의원을 추천하다.
- 최종적으로 김은상 의장, 한상만 평의원, 전미희 평의원 3인이 추천된 바, 김은상 의장이 평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확정하다.

4.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 김은상 의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사항 및 기타 변경사항 반영 부분에 대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다.
- 김은상 의장이 삼성전기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설 관련 변경사항 반영에 대한 심의 의견을 요청하고, 제6조 별표1 개정(안)에 대해 2020년 입학정원을 삭제하고 2024년 입학정원을 추가하는 사안인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학칙에는 4개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표기하며, 2024년 입학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소재부품융합공학과는 계약학과로서 정원 외에 해당함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표기하였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제52조 별표5 개정(안)에 대해 소재부품융합공학과를 신설하는 사안인지, 그리고 해당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학과의 정원이 조정되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소재부품융합공학과를 신설하는 사안임을 확인하고, 해당학과는 계약학과로 정원외에 해당하여 정원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학과의 정원은 조정되지 않는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소재부품융합공학과 운영과 입학인원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해당학과는 2022. 3월부터 약 20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기업체 재직자 이외에 일반학생은 입학이 불가하고, 전문대졸 이하의 자격요건이 있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에 대해 질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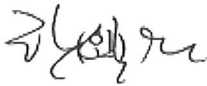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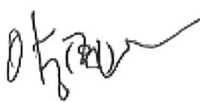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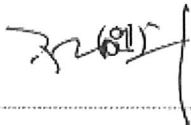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금년도에 약 70명 정도가 입학하였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LG, SK 등의 기업들이 타대학과 신설한 학과가 이와 유사한 계약학과 프로그램인지 문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사례들 모두 계약학과 사례라고 답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경영대학에서는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하였었으며, 향후 소재부품융합공학과와 같이 학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약학과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다.
아울러 계약학과가 기업체의 임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나 쉽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여 엄정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계약학과 질 관리에 대한 교내 공감대가 있으며, 엄정한 학사관리, 자체 자격시험 등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현장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히 교수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다.
- 김은상 의장이 교육부 첨단분야 학과 대학원 학생정원 반영에 대한 심의 의견을 요청하고, 인사캠 및 자과캠 학사/석사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첨단분야 학과에 정원이 추가로 배정되는 사안인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첨단분야 학과정원 추가 배정을 신청한 학과 대다수가 선정되었으며, 일부학과의 미활용 정원을 첨단분야 학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3개년치 평균 미충원율을 바탕으로 배정 규모가 산출되었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첨단분야에 정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학과에 비슷한 규모로 배분되듯이 배정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학과별 첨단분야에 대한 인력수요, 장학금, 연구비 등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원을 차등하여 배정하였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일부 공학계열 학과의 소속캠퍼스가 인사캠인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등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 소속으로서 인사캠 학생을 대상으로 신설되었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본교의 충원율에 대해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일반적으로 본교 충원율은 90~95% 수준이고, 전학년도에는 99% 이상 달성하였으며, 충원율이 매우 높아 대학원 차원에서 학과별 정원을 적절히 안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 양경아 평의원이 전학년도 충원율이 매우 높아 소속학과의 신입생이 소수였으며, 이를 고려할 때 혹시라도 활용되지 않는 정원이 있다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으로 활용됨이 적절하다고 제언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정원의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의 20% 이내에서 정원의 계약학

과를 신설할 수 있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국제어수업 학점 이수제 폐지에 대한 심의 의견을 요청하고, 국제어수업에 대한 전임교원의 개설의무 및 재적생의 이수 의무를 폐지하는 사안인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VISION2030에 따라 글로벌수업의 패러다임을 글로벌언어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향에서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차기 대학평의회에서 VISION2030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요청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글로벌 정책이나 방침이 아닌 전임교원 국제어수업 책임학점 폐지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하는 이수 의무가 폐지된다는 개정사유에 대한 정정의견을 제언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개정사유에 대한 정정의견을 주관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하다.
- 전미희 평의원이 오랜기간 유지되어 온 국제어수업에 대한 개설의무, 이수 의무를 급작스럽게 폐지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며, 학과별로 차등이 필요하지 않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개설의무 등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제어 지정과목을 통해 교환학생, 외국인학생 등이 국제어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다.
- 전미희 평의원이 국제어수업 이수 의무의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 청취에 대해 질의하다.
- 장필규 평의원이 학부 재학생으로서 공지를 통해 국제어수업 이수 의무 폐지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수 의무로 인해 국제어수업을 수강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수 의무 폐지에 따라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제언하다.
- 양경아 평의원이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국제어수업의 A등급 학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어수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제어수업 개설의무, 이수 의무만 폐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어수업 자체가 폐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국제어수업 개설의무, 이수 의무만 폐지되며, 학칙 개정에 따라 국제어수업이 아닌 일반수업의 A등급 학점 비율도 국제어수업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기구의 신설/폐지 등 개편에 대한 심의 의견을 요청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해외 Stanford 대학의 경우 디자인 대학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사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나, 본교의 경우 디자인 대학원이 폐지되어 글로벌 트렌드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디자인 대학원은 학생 수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교내 폐지 기준에 따라 폐지되었다고 하다.
- 김은상 의장이 해당 대학원 교원의 향후 소속에 대해 질의하다.

- 소속 교원은 학부를 전임하고 해당 대학원을 겸임하기 때문에 소속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다.
- 전미희 평의원이 디자인 대학원의 신설연도에 대해 질의하며, 신설 당시의 취지에 비해 학생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디자인 대학원은 1997년에 신설되었으며, 현실적인 여건 하에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어려움에 대해 답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향후 회의 진행에 있어 안전에 대한 용어 개념, 심의 배경 등에 대해 평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향후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은 물론 학교조직 현황 및 VISION 2030에 대한 내용을 차기 대학평의원회 보고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17:2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3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서용원		한상만		전재욱	<위임>
김윤배	(인)	김은상			
박동희		김중환	<위임>		
양경아		장필규		최유선	<위임>
전미희		윤영선			